

홍해로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은 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출애굽기 12:29-32). 사건이 많았던 유월절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라메세스에 모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창세기 15:18-21; 출애굽기 3:8).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본보기가 되거나 “예표”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대 백성들을 대하신 방식에서 교훈을 얻어,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 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을 시작한 람세스는 이 노예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 지은 “보물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11; 12:37). 람세스는 또한 그들을 압제했던 파라오의 칭호이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도시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의 태양신은 ‘라(Ra)’였다. 이 파라오가 스스로 ‘라메세스(Rameses)’라는 칭호를 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이름은 ‘태양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라메세스는 실제로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준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이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3-25; 3:7-10

이 점에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로마서 8:14; 히브리서 3:5,6; 베드로전서 2:5,9,10)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하자면 우리를 압제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며,

원래 이름은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의 루시퍼였습니다. 옛날의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그는 참된 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기만적인 수단을 통해 “빛의 천사”로 위장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14). 사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보물 도시들—즉, 참된 하나님의 도시인 척 위장한 거대한 교회 체제들—을 세우도록 이끌려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가 단순히 거대한 교회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보물 도시들이 이집트 전체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노예로 살았던 세상, 즉 어둠과 죽음의 왕국을 상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21-23; 갈라디아서 4:1-7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더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다. (요한복음 1:29; 고린도전서 5:7). 이 점에 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가 마침내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신실함이 필요하다.

유월절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었다. 문설주와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그들의 순종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출애굽기 12:22,23). 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불순종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흠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시편 103:14; 로마서 11장).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과의 인내를 거두셨습니다. 신실함과 순종을 지속하지 못한 이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로 되돌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돌려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22,23).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한 본문 첫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 우리가 더 신실하게 행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1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평범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감사와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브리서 11:6)고 말씀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3

“영원한 도시는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라메세스에서 모였고, 거기서부터 수컷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33:5). 수컷이라는 이름은 “초막”을 의미하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집이 의심할 여지 없이 제공해 주었던 많은 편의와 필수품들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르심이었음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집과 지붕이 주는 보호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천막에서 살아야 했다. 여기에는 영적 안식의 천국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들이 현재 여행하는 동안 길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영원한 성읍”은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13:14).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적 자녀로서,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보호를 위해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임시적이고 겸손한 거처에 머물며, 그분께서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3,4). 모든 필요의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보호에 대한 그분의 귀한 약속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압도했을 폭풍과 불같은 시련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장막을 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1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름의 그늘 아래서 여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3:21,22). 이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상기시켜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14-17, 28). 이 은혜는 결코 방해받거나 저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구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덮개를 우러러보며, 그로 인해 그분의 자비와 돌보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항상 삶의 즐거운 경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이러한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10

같은 종류의 두 식물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하나는 빛과 신선한 공기가 차단된 지하실에서 키우고, 다른 하나는 열린 정원에서 키우십시오. 몇 주 후 두 식물의 차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는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약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식물은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지만, 바로 이 보호가 그 식물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 야외에서 자란 식물은 태양의 빛이 주는 양분과 비가 주는 생기를 불어넣는 수분의 도움을 받아, 자연의 역경과 싸우며 강해집니다. 이 광활한 하늘의 그늘 아래에서, 식물은 그 성장과 강인함에 기여하는 온갖 요소와 조건들 덕분에 번성합니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노출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닥치는 거센 바람이 나무로 하여금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게 뻗게 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생계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햇빛이야말로 필수적인 수단이며, 이를 통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폭풍을 견뎌내며 강해지지만,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햇빛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보였던 열정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을 가능성, 심지어 위험마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4). 민수기 33장 6-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홍해 북쪽에 있는 작은 개울들에 도달했을 테고, 그곳은 분명히 건너기가 훨씬 쉬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도 더 직선적으로 연결되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라오의 영토와 자신들 사이의

거리를 늘리는 대신 오히려 줄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과 자신들 사이의 장벽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이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2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비록 때로는 그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잠언 14:12

우리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둔다면, 우리는 본능적인 성향과 선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대개 가장 적은 저항을 받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편 기슭이 보일 때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육신의 시야를 가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맑고 화창한 날 배를 타고 여행할 때는 선장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가 끼어 익숙한 랜드마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장과 그가 우리를 원하는 안식처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능력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선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 초조함, 우려, 의심, 그리고 근심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장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동안 믿음으로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시편 34:19; 고린도후서 1:9, 10). 바로 그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볼 기회를 갖도록 그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출애굽기 14:13). 그분은 그들의 행로를 바꾸어 피하히로스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낙담하여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평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붉은 바다와 뒤에는 이집트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에 탈출할 길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10-12

아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앞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만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치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닥쳐올 듯한 파멸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절실히 필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망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망대가 되십니다. 말 그대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더 이상 나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익숙한 망대가 보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망대는 위치를 알려주며,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안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힘과 구원의 망대이시며,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구원을 가져다주십니다. (시편 61:1-3; 잠언 18:10). 그분 없이는 우리는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 없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그돌과 바다 사이”인 피하히로스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2; 민수기 33:7). 미그돌(Migdol)은 히브리어로 ‘ ’ 즉 ‘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난처의 탑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에 순종한 결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탈출을 가로막는 뚫을 수 없는 장벽으로 보였던 바로 그 바다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던 구름은 이제 진영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의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의 기둥이 되어, 밤새도록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향해 진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출애굽기 14:19-22). 아침이 되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그곳을 지나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을 통해 믿음이 시험받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차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31; 요한일서 4:4). 이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분과 협력할 때, 승리와 구원은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실 때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든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깨닫고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9-11).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좁은 길에서의 모든 진전은, 주님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이 고요하고 신뢰에 찬 안식에 기초를 두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8:28). 그러므로 여정의 끝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안식의 가나안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정의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57